

# 육상 고승환·복싱 임애지 등 광주·전남 5명 대한체육회 체육상

광주, 고승환·육철수 교장·이용범 파크골프협회장...전남 임애지·김백수

5명의 광주·전남체육인들이 대한체육회 체육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체육회가 3일 발표한 제71회 체육상 수상 명단에 고승환(광주시청), 육철수 광주체육고 교장, 이용범 광주시파크골프협회장, 복싱 임애지(화순군청), 순천시청 소프트테니스팀 김백수 전 감독이 이름을 올렸다.

경기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육상 국가대표 고승환은 지난해 열린 제105회 전국체전에서 대회 4관왕에 올랐다. 그는 1600m 혼성계주에서 한국신기록을 작성했고, 200m와 400m 계주에서는 대회신기록을 합작했다. 이어 1600m 계주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 그는 제35회 전국실업단체에서 대회신기록으로 200m 금메달을 차지했고, 2024 대만오픈 400m릴레이 금메달, 2024 아시아릴레이선수권 금메달 등 국내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한국 육상의 위상을 높였다.

육철수 광주체육고 교장은 학교체육 부문 수상자가 됐다.

육 교장은 지난 12년간 광주체육중·고 중장거리 감독으로 재직하며 맞춤형 훈련 방식을 도입, 다수의 국가대표 상비군을 배출하는 등 우수선수 육성에 힘써왔다.

광주체육고 교장 부임 후에는 선수들의 개인별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과학적 훈련을 통해 체육인재 양성에 기여했다.

생활체육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이용범 광주시파크골프협회장은 파크골프 대중화와 저변 확대에 앞장섰다.

그는 지난 2023년 제1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 전국 파크골프대회 및 지난해 제13회 광주시장배 파크골프 전국대회를 유치·개최했으며, 지역 파크골프회원들의 실력 및 자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시체육회 전갑수 회장은 "수상자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 소임을 묵묵히 이어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순천시청 김백수 전 감독은 30년 가까이 소프트테니스 지도자로 활동하며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우수한 성적을 이끌어 온 공로로 지도 부문 수상자가 됐다. 특히 2023년에는 소프트테니스 남자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되어 제17회 안성 세계소프트테니스 선수권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등 대한민국 소프트테니스의 위상을 높였다.

경기 부문 수상자인 임애지는 국내외 다양한 대



광주시청 고승환.

회에서 꾸준한 성과를 거두며 대한민국 여자복싱을 대표하는 선수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지난해 열린 파리올림픽에서는 여자 -54kg급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여자복싱 최초



화순군청 임애지.

올림픽 메달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전남도체육회 송진호 회장은 "김백수 감독과 임애지 선수가 훌륭한 성과를 거두며 전남 체육의 위상을 높였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전남

체육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체육상 시상식은 오는 25일 오후 3시 서울올림픽파크텔 1층 올림픽아홀에서 열린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 'KLPGA 평정' 윤이나, LPGA 데뷔전 나선다

7일 파운더스컵 출전

김효주·이정은 등 총출동

지난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를 석권한 윤이나가 드디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에 첫선을 보인다.

윤이나는 오는 7일부터 나흘 동안 미국 플로리다주 브레이든턴의 브레이든턴 컨트리클럽(파 71)에서 열리는 LPGA 투어 파운더스컵(총상금 200만달러)에 출전한다.

윤이나는 지난해 LPGA 투어 웰리파이 시리즈 최종전에서 8위에 올라 올해 LPGA 투어 출전권을 땀다.

사실상 올해 LPGA 투어 개막전이나 다름없는 이번 대회에 세계랭킹 1, 2위 넬리 코다(미국)와 리디아 고(뉴질랜드), 후루에 아이카(일본), 해너 그린(호주), 찰리 힐(잉글랜드), 셸린 부티에(프랑스) 등 세계랭킹 10위 이내 선수 6명이 나서는 등 출전 선수 명단이 화려하지만, 국내 팬들의 관심은 윤이나에게 집중된다.

윤이나는 2023년 KLPGA 투어에 데뷔해 화려한 장타력과 박진감 넘치는 경기로 단숨에 최고 인기 선수로 발돋움했다.

신인 때 오구 플레이로 3년 출전 금지 징계를 받았지만, 워낙 뛰어난 재능과 인기를 고려한 KLPGA 투어의 징계 감면으로 지난해 필드로 복귀한 윤이나는 대상, 상금왕, 평균타수 1위 등 주요 개인 타이틀을 석권했다.

지금까지 KLPGA 투어를 석권하고 미국에 진출했던 박세리, 김미현, 전인지, 박성현, 이정은 등이 LPGA 투어에서 거둔 성공 신화를 이어받겠다는 야심이다.

LPGA 투어에서도 통하는 장타력과 탄도 높은 고품질 아이언 샷을 지닌 윤이나는 자주 경험하지 못한 버뮤다 잔디 등 현지 코스에서 얼마나 빨리 적응하느냐가 성공의 열쇠로 보인다.

이번 대회는 부상에서 벗어난 전인지, 박성현의 필드 복귀전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전인지와 박성현은 윤이나보다 훨씬 앞서 KLPGA 투어를 석권하고 더 강력한 팬덤을 거느



린 한국 여자 골프 스타 플레이어다.

전인지는 작년 5월 US여자오픈 이후 거의 9개월 만에 LPGA 투어 대회에 나선다. 작년 시즌 병가를 내고 쉬었던 박성현은 2023년 10월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이후 1년 4개월 만에 LPGA 투어 대회에 출전한다

이 대회 최다 우승(3회) 기록 보유자인 고진영은 네 번째 우승을 노린다.

김효주, 이소미, 이미향, 이정은, 장효준, 전지원, 지은희, 박금강, 주수빈 등 LPGA 투어 카드를 지닌 한국 선수는 총출동한다.개막전에서 우승한 김아림과 유해란은 빠졌다. /연합뉴스

## '아시안게임 팀 코리아' 선수단 하얼빈 입성

8년 만에 열리는 동계 아시안게임에 나설 대한민국 선수단이 결전의 땅 중국 하얼빈에 입성했다.

최홍훈 선수단장(대한스카스노보드협회장)이 이끄는 우리나라 선수단 분진은 4일 오후 타이핑 국제공항을 통해 하얼빈에 도착했다.

이날 하얼빈에 입성한 본진은 대한체육회 본부 임원 16명과 크로스컨트리 대표팀 13명을 합해 29명이다.

크로스컨트리 대표 이의진(부산시체육회)과 이준서(단국대)가 태극기를 맞잡고 본진의 선봉에 섰고, 최홍훈 단장을 비롯한 관계자들도 밝은 표정으로 입국장에 들어섰다.

입국장에는 하태욱 부총영사를 비롯해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과 중국한국인회, 하얼빈한국인회 등 관계자 20여 명이 나와 "대한민국 파이팅, 선수단 파이팅"을 우렁차게 외치며 환영했다.

최홍훈 단장은 "날씨가 워낙 춥다고 해서 걱정하며 왔는데, 열렬히 환영해주셔서 힘이 난다. 응원 열기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정정당당히 열심히 해서 응원에 보답하겠다"고 인사했다.

이의진은 "많이 환영해주셔서 기분이 좋다.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고자 준비한 만큼 단체와 개인전 모두 입상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고, 이준서도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다. 단체전 메달을 우선 목에 걸고 싶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2017년 일본 삿포로 대회 이후 8년 만에 열리는 제9회 하얼빈 대회는 오는 7일 오후 9시 하얼빈 국제 컨벤션 전시 스포츠센터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14일까지 열전을 벌인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1일 아이스하키를 시작으로 2일 쇼트트랙과 컬링 믹스더블, 3일 스피드스케이팅 등이 먼저 하얼빈에 들어왔고, 4일 필리핀과의 컬링 믹스더블 라운드르빈 1차전으로 경기 일정을 시작했다.

5일에는 알파인스키, 스노보드, 프리스타일 스키 대표팀이 도착하는 등 선수들의 입국 행렬이 이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개막을 사흘 앞둔 4일 오후(현지시간) 크로스컨트리 대표팀 이의진이 중국 하얼빈 타이핑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며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민관합동위원회 측으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어질 예정이다.

34개국 13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이번 대회엔 빙상, 스키, 컬링, 아이스하키, 바이애슬론, 산악스키 6개 종목의 11개 세부 종목에 총 64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다.

직전 삿포로 대회 때 금메달 16개, 은메달 18개, 동메달 16개로 종합 2위에 올랐던 대한민국은 6개 종목 222명(선수 148명·경기 임원 52명·본부 임원 22명)의 선수단을 꾸려 수성에 도전한다.

최홍훈 단장은 "선수들이 많이 기다려온 동계 아시안게임인 만큼 갈고닦은 실력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시아 국가들이 동계 스포츠 투자를 많이 하면서 격전이 예상되지만, 종합 2위 수성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개회식에서 우리 선수단은 아이스하키의 이충민(블루밍턴 바이슨스)과 컬링의 김은지(경기도청)를 기수로 앞세운다.

5~6일엔 컬링 믹스더블 라운드르빈과 아이스하키 조별리그 경기가 이어지며, 개막일인 7일부터 우리의 '메달밭'으로 여겨지는 쇼트트랙 경기가 펼쳐진다. 본격적인 메달 레이스는 8일 시작된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공모전시 환희 : 양홍길 개인전

일시 : 2025-1-15(수) ~ 2025-2-16(일)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광주시립교향악단 체임버 시리즈 I 'Cello Moments'

일시 : 2025-02-21(금) 19:30  
장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2  
문의 : 062-613-8241